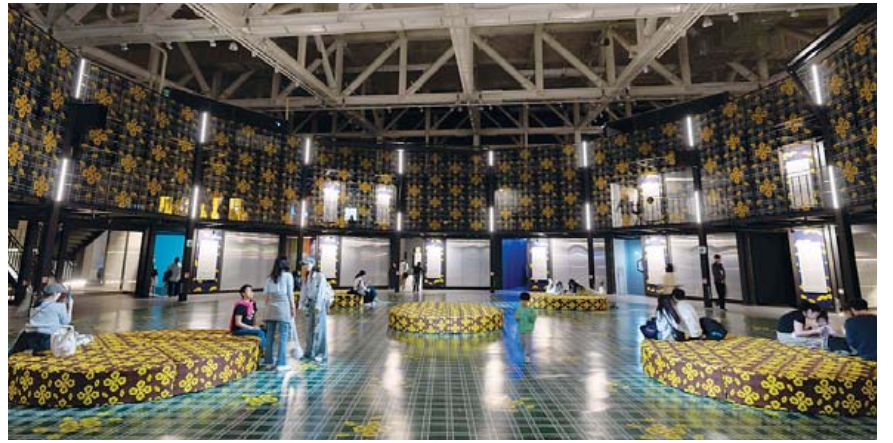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30일 도심 속 문화 피서를 즐길 만한 공간을 소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광주예술고 협력 전시가 진행 중인 대나무 정원, 배롱나무가 만개한 열린마당, 8월24일까지 열리는 '애호가 편지' 전시 전경.

〈ACC 제공〉

한여름 ACC서 즐기는 도심 속 문화 피서

8만여 권 책과 함께하는 문화정보원 도서관부터
트로트, 미디어아트 소재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
하늘·열린마당 등 자연 속 즐기는 힐링공간까지

무더운 여름, 도심 속에서 문화와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다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제격이다. 탁 트인 도서관에서의 북강스, 수준 높은 전시 감상, 도심 속 피크닉 명소로 떠오른 하늘마당까지. ACC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린 문화공간으로 여름의 여유로움을 선사한다.

책과 함께하는 편안한 휴식 공간

ACC 문화정보원 내 도서관은 2천900㎡ 규모로, 8만여 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다. 세련된 실내 디자인과 넓은 전망, 바깥 공간과 이어진 대나무 정원은 독서와 사색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도서관 외벽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타공판은 커튼처럼 열리고 닫히며 빛의 양을 조절하고, 내부 중간 공간 설치된 채광정은 자연광을

유입시켜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입구에는 '북큐레이션'과 '신착도서' 서가가 마련돼 있다. 현재는 아시아 여행기와 식물 관련 도서가 여름 큐레이션으로 전시 중이다. '책으로 보는 아시아' 코너에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책과 번역 자료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오디오북 키오스크, 신문과 잡지 코너, 독서 보조기기까지 갖추고 있어 시·청각 약자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통창을 마주한 열람석은 자연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독서 시간을 보내기 좋은 명소다.

도서관 옆 조명과 식물이 어우러진 대나무 정원에서는 현재 광주예술고와의 협력 전시 '잇-다'가 열리고 있다. 한국화와 학생들의 우수작품 50여 점이 전시 중으로 산책하며 함께 감상해볼 만하다.

다양한 전시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

ACC는 다양한 무료 전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오는 6일까지 북합전시5관에서는 'ACC 지역 작가 초대전-이이남의 산수극장'이 열린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은 전통 산수화와 호남의 자연 풍경, 가족과 고향의 기억을 결합한 미디어

아트를 통해 친근하면서도 독창적인 시선을 전한다.

8월24일까지 북합전시2관에서는 트로트를 주제로 한 전시 '애호가 편지'가 이어진다. 도시 감성을 담아낸 트로트 음악을 매체예술로 재해석한 이번 전시는 5개국 13팀이 참여해 평범한 일상의 의미를 조명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자연과 함께하는 도심 속 힐링 공간

ACC 하늘마당은 지난 5월31일 정식 개방 이후 시민들의 도심 속 피크닉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약 7천㎡ 규모의 천연잔디 광장에서는 버스킹,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이 펼쳐진다. 조망이 탁월하고 접근성도 뛰어나 가볍게 방문해도 소풍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특히 '빛의 숲'을 모티브로 한 조경과 조명이 어우러진 야경은 젊은 층 사이에서 SNS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탁 트인 전망과 제철 꽃, 감각적인 조명 덕분에 이곳에서 사진 한 장이면 여름의 낭만이 고스란히 담긴다.

이밖에도 곧 배롱나무꽃이 만개할 ACC 열린마당도 추천할 만하다. 배롱나무는 7-9월 사이 오랜 기간 꽃을 피우는 여름꽃으로, 열린마당 일대를 붉게 물들이며 장관을 이룬다. 시민들이 정원을 더욱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의자와 그늘도 설치됐다.

김상욱 전당장은 "ACC는 3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될 만큼 우리 지역의 대표 관광 명소"라며 "시민의 놀이터이자 모두에게 열린 공간에서 여름의 낭만과 문화를 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세계 명연주자들과 함께하는 여름밤 감동

(사)코코넛 주최 '스바보드나' 광주 공연...오늘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연주자들과 펼치는 콘서트 '스바보드나(Svobodna)'가 1일 오후 7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다.

'스바보드나'는 러시아어로 '자유롭게'를 뜻하는 말로, 연주자들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음악을 펼치겠다는 뜻을 담았다.

(사)코코넛이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깊이 있는 연주와 폭넓은 연출을 통해 여름밤 관객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무대에는 세계 유수 콩쿠르 수상 경력을 지닌 연주자들이 대거 오른다.

피아니스트 파벨 라이케루스는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 국제 콩쿠르와 폴란드 카를 시마노프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으며, 첼리스트 알렉산더 램은 베이징 국제 음악제 그랑프리 수상자이자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2위 입상자다. 바이올리니스트 세르게이 도가딘 역시 독일 하노버 요제프 요아힘 국



피아니스트 파벨 라이케루스

제 콩쿠르와 싱가포르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1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금메달 수상 등 세계 정상급 실력을 인정받은 연주자다.

공연은 첼리스트 램이 연주하는 스트라빈스키의 '이탈리아 모음곡'으로 문을 연다. 이어 피아니스트 라이케루스가 하이든의 '피아노 협주곡 D장조(Hob.XVIII:11)' 중 1악장 '비바체'를 들려준다.



첼리스트 알렉산더 램

세르게이 도가딘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A장조(K.219)' 중 1악장 '알레그로 아페르토'를 연주하며 기교와 서정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하이든의 'C장조 미사곡(Hob.XXII:3)' 중 '글로리아'가 합창곡으로 울려 퍼지며, 한국 가곡도 프로그램에 포함돼 풍성한 무대를 구성한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가능하며, 공연 관련 문의는 공연기획팀(070-7530-5215)으로 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성평등 감수성 깨우는 '젠더 브런치 영화제'

3·17일 북카페 은새암

광주여성가족재단과 광주여성영화제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젠더 브런치 영화제'가 오는 3일과 17일 오전 11시30분 북카페 은새암에서 열린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평등 문화 확산과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으로,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이 후원한다. 독립영화라는 장르를 통해 성평등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내고자 기획됐다.

'젠더 브런치 영화제'는 점심시간에 운영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누구나 편하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광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영화 상영 후에는 간단한 소감 공유 시간을 포함한 '브런치 무비토크'도 진행돼 관객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1회차인 3일에는 수영장 청소원 '세은'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 '점방'이 상영된다. 2회차인 17일에는 한옥 찾집을 배경



'백차와 우롱차' 스틸컷

으로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백차와 우롱차'를 관람한다. 프로그램 참여는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gjwomenfamily)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영화제가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참여하고, 영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북카페 은새암을 시민 문화 거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